

# 호라라는 곳은 어떤 곳?

메이테쓰 세토선 오와리세토역이 있는 중심 시가지에서 동쪽으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호라 지역은 에도시대(1603~1868)에는 세토무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19세기 이후 세토무라가 도자기 생산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호라에도 장대한 연방식 노보리가마가 즐지어 늘어지면서 왕성히 도자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지소 가토 다미키치에 의해 자기 제법이 알려 지자 세토무라의 각 지역에서는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가마 수가 도자기 생산을 하는 가마보다 많아지게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도자기 제작에 강렬한 기풍이 있었고 현대에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라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가마가키는 도자기 제작에 인생을 바친 호라 장인들의 숨결을 느끼게 해 줍니다.

마을 전체에 넘쳐나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찾아 보자!

##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날 수 있는 마을

세토에는 마을 곳곳에 도자기로 장식된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마가키"입니다. "가마가키노코미치"에서도 다양한 가마가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마가키노코미치 이외에도 시내에는 세토가와 강변을 중심으로 약 600곳의 가마가키가 있습니다.

가마가키란, 노보리가마나 석탄가마 등으로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된 엔고로, 선반, 쓰쿠 등 다량의 "가마 도구"의 폐자재를 장인들이 도자기 제작 틈틈이 토압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 낸 울타리, 흙막이, 건물 기초를 말합니다. 높은 것은 약 4m 정도, 긴 것은 약 30m나 되는 것도 있는데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가마 도구를 조합하여 함께 굳힌 것으로 시멘트 등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쌓여져 있습니다. 원형과 사각형, 평면 형상과 원통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마 도구를 조합하여 쌓아 올린 기하학적인 모양의 가마가키. 세토 마을 곳곳을 산책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가마가키를 찾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호센지 본당

1

## 호센지

호센지는 1252년에 레이이잔 진구지로 설립되었는데 그 후 300년간의 내력은 불분명하며, 1596년에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633년에 아카즈의 은코지 15세 고난오쇼에 의해 젠사쓰 다이쇼잔 호센지가 이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본당에는 본존 석가 무니 여래, 관음당의 1층에는 천수천안 관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으며, 그 2층은 수도승들의 수행장인 좌선당이 있습니다. 매년 11월에는 "오야쿠시상(아멘보 축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 정문

정문은 일본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상하 이중 구조의 옹궁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부분은 이전에는 종루로 사용되었습니다.



### 종루

제2차 세계 대전 때에 금속 부족으로 범종이 공출되었는데 그 후 1952년에 단가의 기부로 재건되었습니다. "신녀 그림"이 종탑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 목 없는 지장보살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목 없는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에도시대에 당시 관리가 숨어 있는 기독교 신자를 찾기 위해 잘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와타나베 고헤이 비석

시코쿠의 하급 무사였던 고헤이는 교토에서 강철 주형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세토에서 도소공원에 있는 도소비 건축에 진력하고 조소 기법을 후진에게 지도하는 등 "도자기 조각의 시조"라고 불렸습니다.



### 도시쓰 주로쿠라칸소조(시지정 문화재)

1843년에 가토 젠에몬 (고보젠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동상은 도자기로 만들어져 가사 승려 옷에는 오리베와 기제도 등 세토 특유의 유약이 사용되었습니다.



### 천장 그림

본당 천장에 세토의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장인이 그려왔다고 하는 천장 그림. 1596년에 발생한 화재로 일부 소실되고 재건 시에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200장의 그림이 있습니다.